



## 2014년 제지업계 신년인사회 “세계 6위 생산국 위치 2014년엔 재도약”

2014년 제지업계 신년인사회가 지난 1월 9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신학용 민주당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우택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등의 유관기관 대표를 비롯한 1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신년인사회는 최병민 한국제지연합회 회장의 신년사,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축사,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 의원의 축사, 최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의 축사,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대표들의 축사, 건배제외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최병민 한국제지연합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대한인쇄문화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같은 종이 관련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좋은 일도 많았다”면서 “제지업계는 원료를 전량 수입하는 가운데도 세계 6위의 종이생산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는 더 좋은 종이를 만들어서 중국과 일본과 경쟁에서 멋지게 승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를 국내 제지산업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자. 이를 위해 ▲종이의 가치 바로세우기 ▲제지업계의 친환경경영 홍보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을 3대 핵심과제로 하고 업계의 중흥을 위해 합심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당)는 축사를 통해 “경영합리화와 기술개발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제지업계가 되기를 진

심으로 기원한다. 원료도 없는 가운데 세계 6위의 제지생산국이 됐다는 말에 상당히 놀랐다. 국회에서 책 읽는 모임을 이끌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출판업계를 비롯해 제지업계와 인쇄업계 모두에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온실가스나 원료수급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안하나 남미 등의 신흥국에서 수요가 늘어나 시장개척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R&D자금 등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제지산업은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중요한 산업인데, 환경규제, 통상임금 문제 등으로 다른 업종보다도 엄중하고 힘들다. 단결된 목소리를 낼 때 힘이 커질 수 있고 정부도 R&D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합된 목소리와 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인쇄업계는 매년 전 세계에 3500억원 정도의 인쇄물을 수출하고 있는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인쇄물량에 대한 제지단가를 조정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